

건전한 학술생태계 구축을 위한 캠페인

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이광복입니다.

항상 우리나라 학술연구 발전에 힘써주시는 연구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연구자분들의 노력 덕분에 누리호발사가 성공하는 등 국가적으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우리나라의 학술적 위상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재단도 탁월한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환경을 마련하고 미래 대한민국의 연구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부실의심학술지 문제가 연구현장에서 계속 제기되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부실의심학술지는 동료심사가 간소하거나 형식적이며, 원고에 대한 수정이나 편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격적 마케팅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고액의 게재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편집부와 심사자 같은 운영진 정보가 불투명한 경우도 많습니다. 부실의심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경우 소중한 연구성과가 제대로 공유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학계를 바라보는 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우려됩니다.

최근 재단이 지원한 연구성과 논문 중에서도 부실의심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와 재단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대응책으로 건전한 학술활동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논문 수나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정량적 지수(Impact Factor 등)를 중시하는 계량평가보다는 논문 자체의 학문적 영향력에 대한 질적 평가를 한층 더 강화하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대학에서도 단순한 정량적 논문게재 실적이 임용이나 승진의 결정적 지표가 되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재단의 노력에 더해 연구자분들의 관심과 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에서 오늘 이렇게 서신을 통해 다음의 사항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부실의심학술지의 특징을 잘 살피셔서 논문을 투고하려는 대상학술지를 선택하실 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연구성과의 가치가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건전한 학술지를 통해 공개되어야 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실의심학술지를 피할 수 있도록 재단이 제공해 드리는 정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재단은 “건전한 학술생태계 구축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연구윤리정보포털(CRE)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연구자분들은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의도치 않게 부실의심학술지를 통해 성과를 발표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보다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재단도 연구자분들과 함께 건전한 학술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열심히 뛰겠습니다.

연구자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